

韓國古建築의 樣式淵源 (3)

高大教授 李 廷 德

Jung-Duk Lee

序論

本論

第一章 建築物의 各部形態(5月號에 掲載)

- 一. 지붕 (/)
- 二. 기둥 (/)
- 三. 天障 (/)
- 四. 壁 (7月號에 掲載)
- 五. 바닥 (/)
- 六. 礎石 및 基壇 (/)

第二章 建築物의 配置 및 平面

- 一. 伽藍配置
- 二. 住宅의 建物配置
- 三. 建物의 平面

結論

The Origins of Designs in Native Korean Architecture

Korea's indigenous architecture derives many of its unique designs from a variety of local sources. Although the basic styles of Korean architecture were derived principally from China, these designs were greatly modified to meet the specific needs of the Korean environment and culture. Though these adaptations have not all been uniformly successful, many deserve to be preserved in the Korean architectural tradition as it continues to develop.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incipal Korean innovations in order to determine which of them could make valuable contributions to modern architecture. The study is divided into two parts: the first is to devote attention to features of design details in specific parts of a building and the second is an examination of traditional Korean notions of site planning and general architectural design.

第二章 建築物의 配置 및 平面

一. 伽藍配置

韓國古建築에 있어서 心血을 기울여 建立한 建築物로 城堡, 宮闕, 佛寺, 廟祀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서도 地域的으로 또는 時代的으로 수많은 形式을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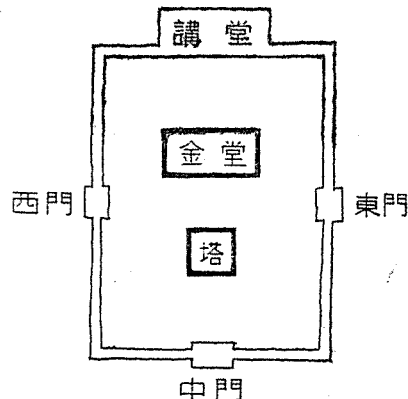
졌던 것은 佛寺建築이라 할 수 있다.

佛寺建築은 그것이 建立되는 곳으로 平地와 山地가 두루 使用되어 왔으므로 그 配置形式은 여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 配置形式은 建築造營에 못지 않게 愼重히 또 巧妙하게 다루어졌으며 宗教의 影響力에 의하여 꾸준히 發展되어 오고 있었다. 그러므로 古代建築 가운데 配置形式의 代表的인 例로 伽藍配置를 들 수 있다 하겠다. 또한 佛寺 以外의 宮闕建築 등의 配置基本形式은 大略 伽藍配置와 同一形式을 갖고 있으므로 伽藍配置에 關하여 考察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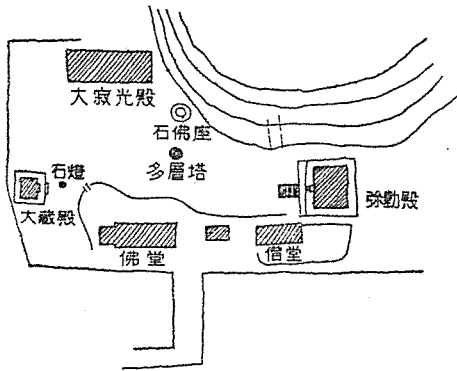
佛寺의 遺蹟은 上體의 木造部分은 그 자취를 잃고 있으나 礎石 등은 多幸히도 많이 遺存되어 있으므로 伽藍配置에 關해서는 比較的 上代에 까지 이를 수 있다.

伽藍配置形式을 分類하여 보면 一塔式, 二塔式, 自由式의 三種으로 되며 이것은 各各 平地와 山地에 建立된 두 가지로 나뉘어지며 間間 無塔式인 것도 있다. 例를 들면 平地一塔式에 皇龍寺(第38圖), 山地一塔式에 金山寺(第39圖), 平地二塔式에 四天王寺(第40圖), 山地二塔式에 華嚴寺(第42圖), 無塔式에 浮石寺, 自由式에 栢栗寺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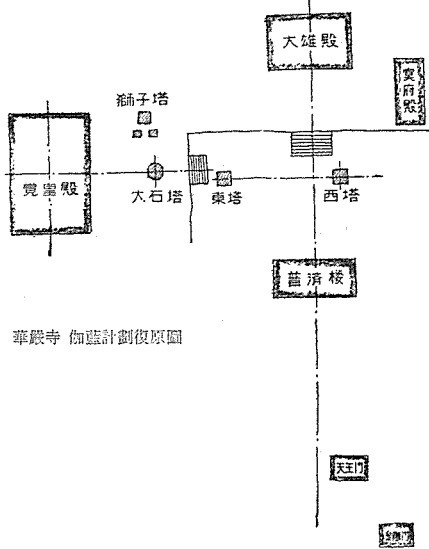
이 諸形式은 같은 時代에 出現된 것은 아니어서 各己 伽藍創建의 時期가 다름은 勿論이다. 卽 三國時代에 비롯되던 平地一塔式의 뒤를 이어 平地二塔式 및 無塔式, 山地一塔 및 二塔式, 自由式 등이 統一新羅時代를 비롯하여 出現되고 있었다. 이들의 形式變遷의 背景을 보면 宗教的인 原因에서만이 아니고 後述하는 바와 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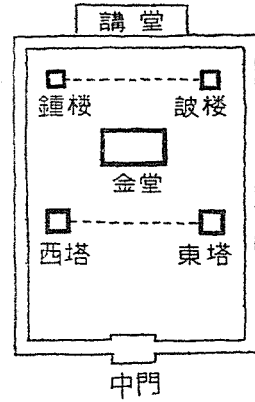
第38圖 皇龍寺伽藍復原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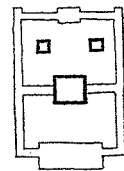
第39圖 金山寺 配置圖 一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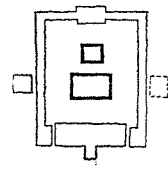
第41圖 華嚴寺 伽藍計劃復原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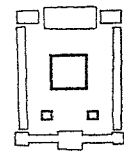
第40圖 四天王寺 伽藍復原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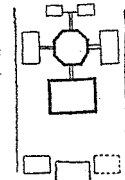
清岩里建築群址 (推定廢寺址)



廣州四大王寺址



扶餘軍守里廢寺址



佛國寺

第42圖

이 地形, 風致 等에의 適應이라는 自然科學的인 要因에 基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古代伽藍의 一括的 考察을 通하여 그 配置形式 가운데 注目할만한 것을 아래에 記述하여 보겠다. (時代的 區別을 省略함)

(1) 三國時代 特有의 有軸의 對稱形式을 土臺로 發展되고 있다. 그리고 그 軸은 南北을 通하고 있다. 文獻에 依하면 이것은 大陸的 陰陽思想에 由緣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三國時代의 有軸的이라는 말은 그 配置形式에 南北一直線上에 中門, 塔婆, 石燈, 金堂, 講堂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軸은 間或 正南北을 向하지 않는 境遇가 있다. (例: 普門寺)

(2) 平地建築과 一部 山地建築에서는 柱廊과 周壁을 本堂周邊에 돌림으로써(第38圖, 40圖, 42圖 參照) 記念的 聖域의 效果를 얻고 있다. 이것은 山地造營에서는 不可能하여 이 形式은 따르지 못하는 境遇도 있다. 이러한 記念的인 空間의 效果를 柱廊에서 찾고 있음은 同系樣式인 宮闕建築에서도 볼 수 있다. (사진 19 및 사진 20參照)이 方法은 西洋古建築에서도 흔히 볼 수 있

다.

(3) 平地伽藍에서는 垜地를 四方整然한 矩形으로 區劃하고 一定한 割地法(各邊三等分法 또는 六等分法과 各邊五等分法)에 依하여 木堂, 塔 等의 位置를 定하고 있다. 이 境遇에는 이 法式으로 因하여 山地에서 보는 바와는 달리 環境에의 適應을 어느 程度 無視하지 않을 수 없겠으나 金堂, 廻廊, 塔 等의 相互距離는 그들의 幅과 높이에 相應하여 配置하므로서 整齊된 相互對照를 나타내고 있다.

(4) 山地伽藍에서는 平地에서의 廻廊, 割地法 等의 制式이 間或 깨지고 있으나 自然地形에 充實히 順應하고 있다. 即 높고도 먼 山中에 造營하는 境遇에도 狹少한 垜地를 巧妙히 配分하며 數段의 垜地를 쌓아 여기에 훌륭히 伽藍을 이루고 있다. 이 例로 智異山 最大의 華嚴寺를 들 수 있다. 이 寺域은 比較的 狹隘한 溪谷인데도 그 地形을 잘 活用하여 最善의 效果를 내리고 한 자취를 볼 수 있다. 南向한 傾斜地를 擇하여 이것을 數段의 垜地로 나누고 最高最奧의 地點에 大雄殿과 覺皇殿의 大建物을 南向과 東向의 「ㄱ」字形으로 두

고 그 前方에 大石壇을 쌓아 建物の 威嚴을 한층 높였으며 또한 大階段은 兩殿과 萬全한 調和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伽藍配置의 常則으로서 南北軸線上에 門堂의 中心位置를 定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조금도 拘碍되고 있지 않으며 東西兩塔의 位置도 非對稱으로 取함으로써(第41圖參照) 覺皇殿, 大雄殿을 비롯한 他建物들과 滋味있는 構成의 妙를 나타내고 있음은 山地伽藍으로서의 利點을 잘 利用한 것이라 하겠다. 이 외에도 有名한 山地伽藍으로서의 佛國寺, 浮石寺, 海印寺 등이 있음은 周知하는 바와 같다.

(5) 新羅佛寺에 많이 쓰여졌다고 生覺되는 石階, 石崖의 制는 훌륭한 山地佛寺建築의 雰圍氣를 造成하고 있다. 이러한 形式의 佛寺의 南門에서 伽藍을 올려보면 石崖上에 中門과 廻廊이 嚴然히 즐지어 있고 또 그 안으로 東西塔이 銳利하게 서있고 背後에 우거진 산수를 遠望하게 되는 風致가 展開되는데 그 좋은 例로서 佛國寺를 들 수 있을 것이다.

(6) 塔式伽藍에서는 特히 塔의 높이의 效果를 보이고 있다. 이것도 亦是 앞서 말한 바 廻廊과 더불어 一種의 記念性을 주기 爲한 建築要素가 되고 있으며 이것은 古典의 東方建築에서 널리 쓰여진 方法이다. 特히 塔의 位置와 그 높이와 本殿의 幅은 함께 좋은 比例를 갖도록 努力하고 있다.

(7) 森嚴한 格式에 따르면 新羅의 伽藍配置는 高麗, 李朝로 내려오면서 變하여 堂宇僧房의 配置는 相當히 自由스럽고 不規則인 것이 되고 있다. 이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宗教인 原因도 있지만 그보다도 空間機能上 便宜한 곳에 適切히 建물을 配置함을 뜻하는 것으로 破格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建물을 主와 從의 性格에 따라 配置한다는 根本制式에는 變함이 없다.

大略 위에 적은 諸形式은 우리나라 古代伽藍配置의 遺蹟을 踏查研究한 學者들의 文獻을 通하여 考察한 結果 注目할만한 形式上의 通性만을 記述한 것이다.

따라서 그보다도 重要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도 史的考察의 範圍에 있는 것은 漏落되고 있는데 그중 重要한 몇 가지를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卽 南北軸을 中心으로 한 縱深的 伽藍配置가 차츰 뒷날에 와서는 橫方向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것, 金堂(本殿)의 位置가 初期에는 一塔式의 影響으로 廻廊의 南北間의 中央보다 조금 北쪽에 있던 것이 時代인 推移에 따라 中央에 오게 되었다는 것 등의 時間에 關係되는 諸樣式問題와 또한 그 外로 兩塔의 位置가 南北으로 金堂과 南廻廊의 大略 中央에 있고 東西로는 東西廻廊의 外邊間距離를 四分하여 定한다는 것, 中間은 金堂과 南門間距離의 中央에 있다는 것, 堂塔面積比의 變化가 一定

한 定理에 依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等과 같은 特定的形式問題 등이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高低가 다른 土地의 境界에 세워지는 樓에 關하여 記述하고자 한다. 이것은 一種의 階段站造(舞臺造)인데 이 端緒는 일찍이 四天王寺, 望德寺의 中門에 볼 수 있고 다시 佛國寺, 末方里寺址 等に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는 中門을 아직 樓를 만들기에 이르지 못한 채 臺地를 오르내리는 것은 中門前의 大石階段에 依存하고 있었다. 이 中門이 차츰 앞으로 나르면 必然的으로 階段站造의 樓가 되어 浮石寺, 海印寺 等에서 보는 바와 같이 樓 아래를 지나서 高臺에 오르게 된다. (第12圖參照) 萬一 이 方法을 따르지 않으면 華嚴寺에서 보는 바와 같이 樓의 一側面 또는 兩側面에 石階를 配置하여 오르내리게 된다. 이 階段站造의 形成은 建築配置機能上 意義뿐 아니라 特殊한 諸謔惑을 준다라는 點에서 興味있는 形式이다.

二. 住宅의 建物配置

李朝末을 前後하여 세워진 住宅을 中心으로 在來住宅에 對하여 觀察하여 보려는 大體로 그 形態의 差를 가져오는 原因으로 社會的 階級の 差와 이에 따른 貧富의 差, 地方的 氣候風土의 差, 地方的 生活感情의 差로 因한 生活樣式의 差, 建材의 求得의 難易의 差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서도 社會的 階級の 差異는 一般平民의 住宅을 矮少하게 만들었고 所謂 兩班의 家屋은 奇形이라 하리만큼 規模가 커졌다. 特히 農民의 집은 보잘 것 없이 다만 虛弱했음은 上記 여러 要因中에서도 가장 나쁜 處地에 살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여러가지 形相으로 分割되는 住宅도 그 根本的인 平面 및 配置形式上의 差異는 地方的인 여러 條件의 差로 因한 것이 大部分이며 이것은 다시 그 規模의 큰 것과 작은 것으로 階層을 갖게 된다. 그리하여 모든 種類의 住宅을 綜合하여 보려는 結局 南部型, 西部型, 北部型의 三種으로 大別하게 된다.

南部型은 서울 以南의 모든 地域의 住宅型을 稱하는 것인데 이 部類에 屬하는 一般型을 보려는 집을 向하여 左側에 부엌을 두고 그곳에서 北에 隣接한 안방을 데우며 안방에서 꺾이어 大廳이 있고 大廳을 건너서 건넌방이 있다. 조금 커지면 건넌방이 구석방으로 되고 여기서 남으로 꺾이어서 南에 건넌방을 두는 所謂 「ㄷ」字型이 된다. 이러한 南部型은 어느 境遇에서나 大廳을 南向으로 둔다. 또 南部型의 特徵은 부엌에서 直接 안방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따라서 前庭과 大廳이 完全한 Hall의 役割을 떠우게 된다. 이와 같은 大廳의 位置는 南部型의 特徵이 되고 있다.

西部型은 平壤으로부터 黃海道北部地域의 型인데 宅이 「ㄱ」字 型으로 굽어지고 ㄱ字의 모퉁이가 되는 部

분에 부엌이 오고 이를 中心으로 房들이 配置된다. 卽 그 左側에 아랫방과 옷방이 있고 부엌을 건너서 건넌방이 있다. 여기서 貧寒層의 집은 건넌방이 없이 一字型으로 되고 富裕層의 집은 口型까지도 擴張되어 第一 안쪽채가 안채로 된다. 富裕層의 住宅은 普通 안채에는 의양간, 머슴방 등이 있고 兩側의 채에는 右側에 건넌방, 左側에 虛間, 庫間 등이 配列되어 中央에 自然히 動線, 空間의 中心이 되는 中庭이 形成된다.

北部型은 寒帶로서의 特徵이 顯著히 나타나고 있다. 卽 南部에서 보는 바와는 달리 부엌과 방 사이의 間壁이 없어서 부엌까지도 暖氣가 通하고 의양간도 부엌에 隣接되어 暖氣가 소를 더우려주고 있다. 그리고 普通 外壁의 面積을 줄이고 房들이 서로 隣接하는 田字型을 基本型으로 함으로써 寒氣를 最大限度로 避하고 있다. 相當히 富裕한 層에서는 囹型으로 까지 擴大되고 뜰은 南部에 開放되어 있다. 이것은 南部 富裕層의 住宅型의 基本的인 큰 口字型和 좋은 對照를 이룬다.

이와 같이 住宅의 平面이 地方에 따라 判異한 形態를 나타냄으로 그 配置形式도 相當한 差異가 있으며 특히 北部型은 生活空間뿐 아니라 附屬建物까지도 隣接하고 있어서 配置 云云의 餘地가 없을 程度이다. 다만 上記한 세 가지 型의 共通된 點으로서是有心的인 空間의 形成이라는 것이 前述한 各型의 形態를 通해 알 수 있다고 하겠다. 卽 南部型, 西部型에서는 뜰을 中心으로 建物이 그 뜰에 羅列하게 되고, 北部型에서는 부엌과 안방을 中心으로 모든 空間이 集結되고 있다. 그리고 西部型에서는 大廳과 뜰이 Hall로서의 動線의 中心役割이 多少 南部型에 있어서보다는 減少되고 있는데 그 理由는 부엌에서 안방 등의 隣接空間에 直接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大廳과 뜰을 經由할 必要가 없어지는 까닭에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西部型에서 뜰과 大廳을 使用하려고 하지 않는 傾向은 氣候的 條件에 適應하려는 것이라 볼 수 있고 따라서 北部型和 함께 寒帶地方의 特徵으로서 그것이 配置形態에 미치는 影響은 크다고 하겠다.

三. 建物の 平面

1. 代表的 古代形式

古建築의 平面樣式이 大體로 有軸의 意는 앞에 적은 代表的 配置形式과 더불어 그 例를 많이 본다. 이 傾向은 宗教建築이나 宮闕建築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멀리 古代 西洋建築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어떠한 힘의 象徵을 表現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權力의 象徵이 必要없는 住宅에 이르러서는 勿論 平面機能上的 要求가 尠했으나 이와 같은 形式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有軸의 空間의 形

式이 古建築의 代表的 建築平面의 形式이었다고 생각 하는 것은 妥當치 않을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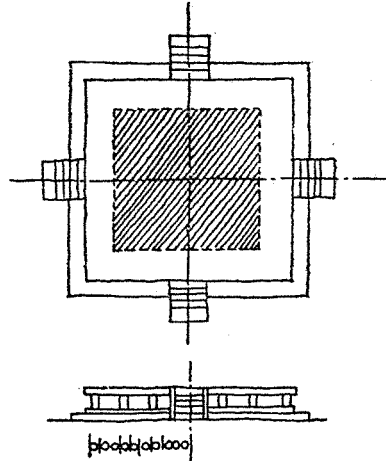
다음으로 有機的 空間으로서 檢討하여 보기로 한다. 結論의 으로 말하여 建築의 本來의 宿命的인 性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Core的인 平面形式이 古建築에서도 그 通性임을 알 수 있게 된다. 卽 大建築에서 住宅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形式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을 본다. 佛寺나 宮闕建築에서 보던 佛尊이나 임금 자리잡은 곳을 中心으로 하여 建築內部的 機能과 또한 나아가서는 그곳을 中心으로 配置形式이 展開되고 있다. 卽 崇高한 空間을 中心으로 하여 從屬的인 空間이 周圍를 차지하는 構成이다. 그리고 前述한 山地伽藍도 이러한 基本樣式에 根源을 두고 發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有心的 空間構成形式은 自然히 平面에서 뿐 아니라 後述하는 바와 같이 天障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니 그 例를 보면 囿천障(折上天井)에 의하여 中央部의 반자를 높여 그 領域에 神聖한 霧氣를 만들고 이곳을 中心으로 다른 空間이 펼쳐지게 되어 있다. 이러한 반자의 層別은 當時 지붕틀의 構造를 잘 適用한 點에서 또한 興味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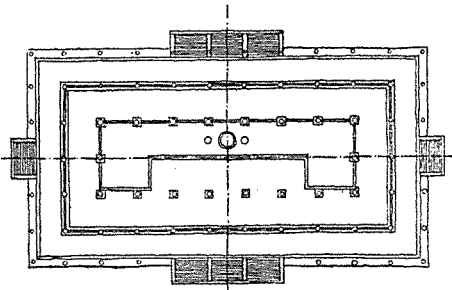
有心的 平面의 例로 住宅平面도 들 수 있음은 累述한 바와 같다. 住宅에 있어서 뜰이 Hall의 役割을 하는 Core的 空間의 性格을 떠올려 마찬가지로 宮闕의 本殿이나 佛寺의 大雄殿 앞에 반드시 中心的인 廣庭이 있어서 이것이 動線上的 中心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宮闕佛寺에서 住宅에 이르기까지 發見되는 이 有似的 空間構成은 主와 從의 象徵的인 뜻에서만 아니고 오히려 建築機能上的 要求에서 많이 使用되어 왔으므로 有軸形式보다 더 普偏的 代表的 形式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形式의 空間構成은 古代西洋建築에서도 나타나고 있었음은 아울러 注目할 바라 하겠다. (古代西洋建築에서의 典型的인 例로 B.C. 700年代의 Assyria 帝國의 Khorsabad 宮殿과 B.C. 1800年代以後의 Egypt의 住宅 등을 들 수 있다.)

이제 有軸平面形式의 形式根源을 暫時 살펴보려는 이 形式은 달리 부르면 左右相稱인 平面形式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左右相稱의 形式은 中國大陸의 古代建築樣式을 特徵지우는 것으로서 嚴格한 儀禮制度나 整然한 官僚機構에서 더욱이 陰陽思想 등에서 보이는 獨特한 思維方式에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有軸平面의 代表例를 宗教建築이나 宮闕建築에서 주로 볼 수 있음은 그 形式이 이러한 左右相稱의 思想에 關聯됨을 暗示하는 것이며 이러한 形式은 또한 權威의 象徵을 가지고 民衆의 心情에 感應을 준다는 點에서 널리 使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43, 44圖 參照) 그러

로 이 形式은 有似空間形式과는 그 形式의 根源에 多少의 差를 갖고 있는 것이다. 卽 有似形式은 오히려 機能의 이라는 要求가 그 形式의 根源이 되고 있는데 對하여 有軸形式은 어떠한 格式과 어떠한 象徴에 主로 그 形式의 根源을 두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어떠한 有軸平面形式은 有似平面形式과 함께 古建築에서의 代表的이라고 말할 수 있다. 有軸空間은 西洋古代의 宗教建築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것도 意味있는 것이며 特히 西洋古建築에서는 一般公共建築에도 그 形式을 發展시키었음은 또한 興味있는 일이다. (例: Roma의 Caracalla 大浴場)



第44圖 方形建築址 (扶餘扶餘山 百濟代)



第43圖 皇龍寺 金堂 (復原圖)

2. 平面에서의 기둥形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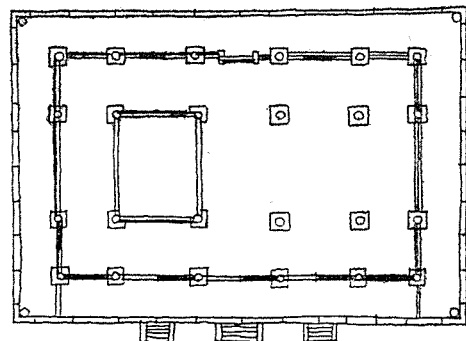
有軸의 平面形式을 갖고 있는 必然의인 結果로 기둥의 位置는 左右對稱으로 展開된다. 뿐만아니라 平面內部가 非對稱的인 機能을 갖고 있는 때라도 기둥의 位置는 對稱性을 잃지 않는다. (例: 浮石寺 無量壽殿 內部는 南北軸에 對하여 非對稱)(第45圖參照) 이것은 建築構造上 極히 妥當한 것이지만 建築構造에 拘礙됨이 없는 內部機能의 自由라는 點에서 (勿論 一定한 制式이 있지만) 興味로운 것이다.

이렇듯 기둥은 恒常 建築의 均齊의 原理에 따르게 되어 外觀은 視覺的으로 安定된 靜의인 均齊美를 表現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表現도 기둥의 數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며 또 기둥의 間數가 偶數인 境遇와 奇數인 境遇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아래에 이들에 關하여 考察하여 본다.

기둥의 柱間數가 偶數인 것과 奇數인 것은 平面에서나 立面에 있어서 그 意味가 다르다. 그리이스의 神殿은 普通 正面의 柱間數는 奇數이고 側面의 柱間數는 偶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卽 正面은 그 自體로서 完全함을 意味하고 側面은 獨立한 것이 못됨을 意味하는 것인바 그 理由는 奇數個의 分割은 中央에 支配的인 單位를 設定하는 것이고 이에 對應하여 偶數個의 分割은 一般的으로 이러한 支配的인 單位를 갖지 않으며

따라서 非有機的인 것이기 때문이라 한다.

이러한 原理를 念頭에 두고 우리의 古建築의 正 및 側面의 柱間을 살피어 보건대 結局 正面柱間이 奇數인 境遇가 支配的이고 側面은 一間차리를 除外하고는 偶數인 境遇가 많다. 正面柱間數는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十一, 側面柱間數는 一, 二, 三, 四, 五의 種類로 나뉘어진다. 그리하여 正面과 側面의 間數의 콤비네이션으로서 各種 建物의 正側兩面의 柱間比가 달라진다. 이 콤비네이션에 있어서 正面柱間數가 側面柱間數보다 적은 境遇는 없으며 다만 同數인 境遇로 一間一面, 三間三面, 五間五面의 境遇가 間或 있을 뿐이다. 또한 正面柱間數가 側面보다 數가 많은 普通形式의 比의 範圍에서도 假令 七間二面, 九間三面 등과 같이 存在하지 않는 콤비네이션도 있다. 그리고 滋味있는 것은 正面이 偶數인 境遇에 側面까지도 偶數인 境遇는 二間二面을 빼고는 發見할 수 없는 點이다. 이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偶數인 柱間數는 非有機的이고 不安全하며 또 追從的인 性質이 있다는 點에 비추어 妥當함을 깨닫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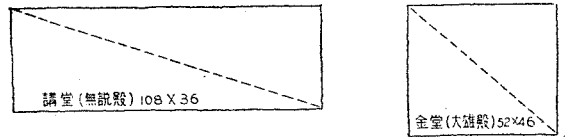


第45圖 浮石寺 無量壽殿 平面圖

이외에도 四間三面, 三間三面 等과 같이 正面의 幅에 對한 側面의 幅의 比例(即 建物の 길이에 對한 幅의 比例)가 나쁘게 될 우려가 있는 形式은 비록 그와 같은 예는 있다해도 그리 잘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이것은 新羅時代까지는 發生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 平面에서의 正面과 側面의 幅의 比

古建築에서는 正面의 柱間數가 側面보다 많은 것이 常例로 되어 있음은 前項에 記述한 바와 같다. 이것은 平面의 正, 側面의 比例에서 恒常 正面이 側面보다 길다고 하는 것을 暗示하는 것인데 遺構를 통해 이를 調査해 보면 果然 正面은 側面보다 길고 따라서 正面과 側面의 길이의 比는 恒常 1을 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古建築을 통털어 그 例外가 없으며 심지어 正, 側面 同數의 柱間數를 갖는 建物에서도 柱間數가 같으나 그 間隔에 差異를 줌으로써 正面과 側面의 길이의 比는 1 以上이 된다. 藤島亥治郎 博士의 平面比例比較圖에서 考察하건대(第46圖參照) 三間三面の 觀龍寺大雄殿은 그 比가 1.217로 되어 있고 좀더 큰 比를 갖고 있는 것으로 三間三面の 松廣寺大雄殿은 1.403 또 三間三面的 道岬寺大雄殿도 1.403까지 되어 있으니 이 마지막의 것은 正面의 柱間隔을 側面의 柱間隔보다 約1.5倍로 잡아서까지 矩形平面으로서의 縱橫의 比例를 維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1.5의 比例値는 取扱된 全體의 建物에서의 比例値의 大略 平均値와 같은 興味있는 일이다. 또한 注意할만한 것은 同時代의 같은 伽藍內에 建築되어 있으면서도 두 建物의 各 比例値가 懸隔히 差異가 있는 것이다. 그 例로 佛國寺의 講堂(無說殿)과 同寺의 金堂(大雄殿)을 들 수 있는데(第47圖參照) 講堂은 比例値가 3.00인데 反하여 金堂은 1.13이어서 講堂은 가름한 矩形인데 對하여 金堂은 거의 正方形에 가까운 平面으로 되어 있다. 이 兩比例値는 各各 同比例表에 나타난 모든 建物의 比例値의 系列에 있어서 그 兩極에 位置하는 極端의인 數値임이 發見된다. 그리고 이 두個의 比例値는 兩便이 모두 좋은 比例値가 되지 못한다. 即 極端의인 比例値를 가진 平面形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듯 極端의인 平面形이라고 해도 오히려 山地伽藍의 配置에 있어서 外形上 奇拔한 相互對照와 調和를 나타내고 있었으리라 生覺할때 當時의 設計計劃의 스케일을 세심 認誠하게 된다. 이밖



第47圖 佛國寺 金堂 및 講堂 平面 比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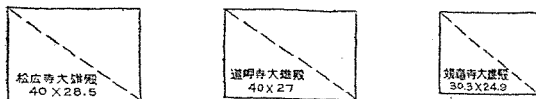
에도 注意할만한 것은 新羅時代의 建築에서 主로 나타나고 있는 比例値인 1.7의 數値는 가장 좋은 比例値로 알려져 있다는 것인데 이 數値는 하나의 規範의 意味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4. 其他

伊太利 近世大建築家 Vincenzo Scamozzi氏는 「自然은(動物에 比喻) 입을 顔面의 中央에 두고 있음과 같이 建築에서도 建築物의 前面의 中央에 主入口를 두어야 한다. 이것은 가장 便利한 位置이며 가장 威嚴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 古建築의 大多數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奇數柱間을 갖는 正面이고 入口의 位置는 正面 正中央에 두고 있으므로 위의 句節에 비추어 보면 合目的의이고 合理的인 것이라 하겠다. 均濟의 基軸部가 되는 中央部에 象徴的인 入口가 位置한다는 것은 宗教建築이나 宮闕建築에 있어서는 寶石이라고 할만한 것으로서 그 內容은 앞서 論述한 바이다.

入口의 向에 關해서 보면 入口의 向은 建物正面의 向에 따르게 됨은 두말할 必要도 없으나 韓國에서는 建物의 向이 主로 南向이므로 南向入口가 많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特히 埃及, 西亞細亞 等 여러 地域에서 古代에 東向入口의 制가 있었다는 點과 對照的이다. 그런데 南向入口는 中國의 天子南面의 格式에 따른 것이 아닌가 보기도 있으나 그보다는 氣候的 動線의(一般의으로 前庭이 動線의 中心이므로)理由가 크지 않을까 生覺된다. 다시 西쪽의 例로서 太陽崇拜가 한창이던 埃及에서는 Abu Simbel의 宮殿과 같이 東方을 向한 것이 많고 大 Sphinx 亦 東向을 하고 또 Babylonia의 神殿, 希臘의 神殿에도 그 例가 많음은 古代 中國系의 것과 좋은 對照를 이루고 있다.

다음에 平面의 型을 概括的으로 보건대 大體로 記念的인 大建築에서는 大概가 矩形平面이며 작은 建築物인 樓閣, 亭, 塔婆 等에서는 幾何學的 變形을 試圖하고 있다. 即 圖形과 四角形의 中間의인 六角形, 八角形의 平面으로 된 것을 비롯하여 때로는 四色形의 四邊에 또다른 四角形의 平面을 붙이어서 만든 所謂 十字型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勿論 이와 같은 變形은 小建築物에만 局限되어 있지는 않았다고 生覺된다. 그 理由는 萬一 이것이 小建築에만 局限되었다면 마치 架構



第46圖 平面比例圖 (三寺 共히 三間三面)

技術上的原因으로(經濟的原因이 없었음은 周知하는 바다)그러한듯 하지만 다음과 같이 比較的 大建築으로서 優秀한 變形의 例를 붙여 技術的原因은 없는 듯하고 그렇다면 大建築에도 變形을 試圖하였으리라 生覺된다. 하나의 遺例로서 平壤清岩里의 廢寺址(高句麗의 剏建한 金剛寺址라 함)를 들 수 있는데(第42 圖參照)이 遺址에 있는 八角殿址에 關해서 前 開城博物館長 高裕燮氏는 그의 著書「韓國 塔婆의 研究」에서「單純한 單層 또는 重層形式의 八角圓堂이었는데 또는 層層重疊하여 中空에 높이 솟아 있던 層樓形式의 八角圓堂의 塔이었는데는 遺跡의 으로는 確認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萬一 이것이 單純한 建物이라 하여도 그 八角形의 一邊의 長이 9.5미터라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當時의 技術을 짐작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미 이와 같은 八角形의 大建築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 時代에 六角形의 것도 있었으리라 推測되지만 이것을 立證할 憑據를 아직 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圓形平面의 築造物로는 全南綾州郡의 多塔峰에 있는 塔을 그 例로 들 수 있다.

住宅에 있어서는 一般의 矩形建物의 連結形式을 取하여 ㄱ, ㄷ, ㄱ, 工, Z字 等의 型과 前述한 北部型인 田字, 卍字型으로 構成되며 또는 이들의 組合으로 되기도 한다. 이러한 形態의 組合은 住宅 以外로도 大建築에 附屬되는 小建築物에서 볼 수 있다.

結 論

韓國古建築의 遺構 가운데 木造로 된 것에서 高麗末의 建築物(六椽遺存)以前의 것은 兵火로 因하여 完全히 損失되어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없으며 石造에 있어서는 (樂浪郡 時代의 것은 純漢族의 人 것이므로 除外하더라도)比較的 上代인 三國時代의 各國首都와 그 周邊에

遺跡을 찾아볼 수 있다. 特別 木造建築에 있어서 上古의 遺構가 남겨지지 못한 것은 매우 哀惜한 일이다. 그러나 多幸히도 이와같은 遺構들은 地上地下의 石造物과 더불어 우리나라 固有의 韓族의 樣式을 보여주는데 充分하다 할 수 있다. 卽 一般 모든 文化部門에서와 같이 그 根源의 背景을 中國大陸에 두고 오랜 歷史에 끊임없이 이 大陸을 通한 外來影響을 받으면서도 韓半島固有의 氣候, 地勢, 地質, 資材 等의 天然條件과 民族의 生活情緒, 宗教의 思想 等에 依하여 獨特한 樣式的 境地를 開拓하여 왔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對外的으로는 東洋建築의 一環에서 注目할만한 位置를 占하고 있으며 對內으로는 비록 工藝에 버금하는 位置에서이지만 其他의 一般美術에 따를 수 없는 華麗한 造形藝術로서의 자취를 남기고 있다.

本 小論은 이와같은 韓國古建築에 있어서 思想的, 形態의 으로 그 代表的인 建築樣式을 建物의 部所別로 統合하여 檢討하여 보고자하는 데에 그目的이 있었으며 이것은 우리나라 古有的 風土의 樣式 가운데 優秀한 것을 하나의 古典으로 삼아서 韓國의 現代建築의 樣式淵源으로 一役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勿論 盲目的인 模倣이나 形式尊重主義에 依하여 古建築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觀點에서가 아니고 慎重한 批判과 더불어 앞으로 새로운 建築設計의 風土의 樣式淵源으로서의 價値를 찾자는 것이다.

本 考察을 通하여 韓國古建築이 內包하고 있는 重要한 樣式淵源은 하나 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樣式淵源은 將次 어떻게 批判을 받으며 어떻게 適用이 되고 또 어떠한 形態로 바뀌어갈지는 앞으로 建築家들에 依하여 그 作品을 通해 表現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祝

第二回 全國優秀建設資材展示會施賞

建設部長官賞

東方火災警報器株式會社

本社·工場： 서울特別市城東區聖水洞二街300 ☎ 7789 ☎ 8789

營業部： 〃 中區南大門路二街8의1 ☎ 0451